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 서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66호 현대불교

29

2011년 12월 14일(음 11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뭐가 걱정될 게 있겠습니까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다. 어느 친구가 중이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야, 우리 어머니 천도 좀 잘해다오" 하니까, 그 대답도 없이 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허허, 애당초에 태어나지나 않았더라면 죽지나 않을 것을..." 하고 그냥 바깥으로 발을 돌리며 나가버립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하치않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무진법문입니다.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동시에 바로 요리를 해서 바로 인간으로 천도를 시킨 한 찰판입니다.

죽을 때면 벌써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받지만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마음으로 업을 지어놓고 굶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지하게 고통을 하게 되죠. 자기 마음으로 지은 것이, 이 모든 생명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있는 이상 자기는 생명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믿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을 알려면, 진정한 자비를 알려면 이 도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고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고 이러는 거,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야, 오늘은 예쁘게 차리고 누구하고 만나고, 또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고,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또 저저 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또 만나고, 또 재미있게 지내면 이게 사는 보람이지.' 이러지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먹더라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자기 중심이, 바로 분수를 지키면서 언제나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난다고 할 수 있으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내세울 수 없는 게 공이 아닌가. 그러를 안다면은 이 우주 전체 모두가, 즉 말하자면 원로로서 튼튼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으니까? 내가 그 원료를 갖다 쓸려면 갖다 쓰는 거지, 어디고 나 아님이 없고 어디고 내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한 생각을 내면 전체가 한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오걸 한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굶뱅이가 매미만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굶뱅이가 벌써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굶뱅이가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까. 뭐, 굶뱅이 곱질 이 자체가 굶뱅이가 아닙니다. 굶뱅이의 마음도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날 것들을 미리 벌써 해놓고서 또 날 때

가 되면은 바로 굶뱅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없어지자마자 벌써 매미로 탄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역시 만 9개월이 되는데, 인간이 '내가야, 이게 벌써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를 벌써 정망해 놓고 아홉 달이 돼서 날 때에 벌써 한쪽에서는 생명이 끊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찰나에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한 인간의 법칙과 더불어 우주의 법칙이 동시에 같이 한 찰나 한 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어치를 여러분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 원료를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속시킬 수 없다면 내 집도 망가지지나와, 내 집을 바껴서 좋은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자유자재할 수 없거니와 이 지구의 집도 내가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점의 마음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들을 울 바로 써야지 마음들을 울바로 쓰지 않으면서, 진실치 못하면서 내가 잘살겠다 못한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면은 전체, 뿌리 하나만 상상하면 이파리고 가지고 뭐고 다 상상하듯이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모든 게 다 거기에서 기원, 우환, 이런 모든 액난이 다 거기서 녹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걱정될 게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나는 설법도 그냥 바쁘니까 잘 못 듣고 그랬으나 내가 스님한테 와서 서너 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주인공에 딱 맡겨 놓는 그 순간 벌써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아주 지금 당장 위급해서 이 집을 그냥 다 파산

할 지경인데 아, 그날 저녁에 이것이 해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냥 그 집을 사자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파니까 빚을 갚고 나서도 반이 남더라고요. 그러니 살았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내일 아침이면 벌써 이걸 다 뺏기고 거지가 될 텐데 예라, 거지가 되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곤 아예 편안하게, 내일 죽을 테니까 아예 가서 잠이나 자겠다 이러고선 가서 잠을 자는데, 죽든지 살든지 편안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야, 여기 집 살 사람이 왔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거지가 안됐더라고요.

사람이 어떠한 급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이 진실하다면 죽으나 사나죠. 자기 안 믿어 봤자, 뭐 그렇습니까. 그럼 누굴 믿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를 억압해서부터 이렇게 끌고 진화시키고 창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시킨 이 몸뚱이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운전수가 돼 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상식과 교양, 모두 잘못되고 잘못된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알고 있으니까 그 나쁜 일을 이렇게 한다 하고 생각이 내려도 그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바로 자기 몸뚱이를 리드해 나가면서, 또는 자기 몸뚱이는 마음이 잘못되거나 이걸 안 된다 하면 주인공에 맡겨 놓고, 이런 된다 할 때도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으면서, '이것도 모든 게, 내가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성품 자체가 고정됨이 없으니 공이 아닌가. 모든 것은 공이면서도 소소영영하게 이렇게 아픈면 만져 주고 또 금방 통신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당신이 얼마나 고마우랴.' 이렇게 자기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억만금을 쥐도 바꾸지 않을 보배를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문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에 빠져서 마음이 충만해지기도 하는데 여덟 때는 잘 안돼서 갑갑해지기도 합니다. 스님, 계속 충만한 마음이 유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꿀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살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승(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헌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다 주인공에 맡겨버리면 나는 그냥 훅훅 날아요

29면에서 계속

지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요.

답) 마음을 좀더 넓게 쓰세요. 잘되는 것만 있고 안되는 게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꼭 상대성이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갔다 하면 꼭 내려야 되죠. 꼭 내려다가 또 타고 올라와요. 잘되는 것만 있다면 이 진리는 끊어져 버리죠.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에 의해서 잘되는 것이 있고 중(中)이 있고 하(下)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동글러 가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면서 하로 사는 사람, 중으로 사는 사람, 대(大)로 사는 사람 이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렇게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왔는데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죠. 내려서 불일 다 보고 또 타고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종점과 시발점이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것은 한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생각에서 풀려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내 한생각에 얽히고설킨 거를 풀 수가 있죠. 생각이니까. 한생각은 한 찰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 얽힌 거를 풀려면 아주 무척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거는 전체가 마음으로 이 죄업이 되고 업보가 되고, 유전성이 되고 인과성이 되고, 세균성이 되고 모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영계성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풀어야지 판 걸로는 안 돼요. 도저히. 그래서 대처해서 막을 길이 없으니까 독 안에 들어서 벗어날 수 없듯이 꼭 당하고야 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당하려면 모든 거를,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기발전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죠.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모든 걸 지금 현실에 나오는 데다 다시 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질 테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없더라는 얘기도, 즉, 번뇌도 없다, 만지 불을 게 없다, 병고도 없다, 모든 게 '없다'로 돌아가요. 왜냐? 그런 마음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마음을 인내 있게, 그 얽히고설킨 업보가 하루 저녁에 하루아침에 그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입력이 됐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거기가 놓으니까 하나 하나 없어지는 거죠. '아하!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구나. 양면을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거를 '아이고! 안되는 거, 내가 되긴 됐는데 안되는 것도

있더라.' 이력하면 안되죠.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건데, 그 안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욕심 있게 대변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 모양으로 씩 가져서 도 깨비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거, 얽히고설킨 거를 전부 제거하려면 하나 하나 인내 있게 믿을 있게, 조금도 허탈히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느낌이 생기는데...

문)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쌍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별 느낌이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느낌이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마음

까 그제 잘되는 겁니다. 또 나한테 아주 밍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도 '나를 귀찮게 안 하게 하는 것도 나쁜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관한다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 가서 그다음부터는 성가시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주 착하지요. 그런데 뭐가 격정이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지는 대로 되는데 왜 격정이예요?

예쁘든 또는 잘생겼든 또는 못생겼든 모두가 자기 할 탓이라고 생각돼요. 편안하게 살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거는 자기 마음의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모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벌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거를 본받지 될 본받겠습니까. 꼭 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잔저리가 나서 나는 안 먹어." 이러죠? 그런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나나 이 살림도 오락가락 하는 거죠. 생활도 오락가락 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자식기간에도 그렇고 그 괴로움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람사람이 끼리끼리 한 철 만나서 사는데 네 내 내 맞 하고 미워하고 예뻐하고 이렇게 한다면 요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

가 알아야 그 뿌리를 믿고 그 뿌리에서 도와주게끔 마음을 내서, 즉 말하자면 푸르른 잎새를 해 가지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제대로 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뿌리인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성으로 인해서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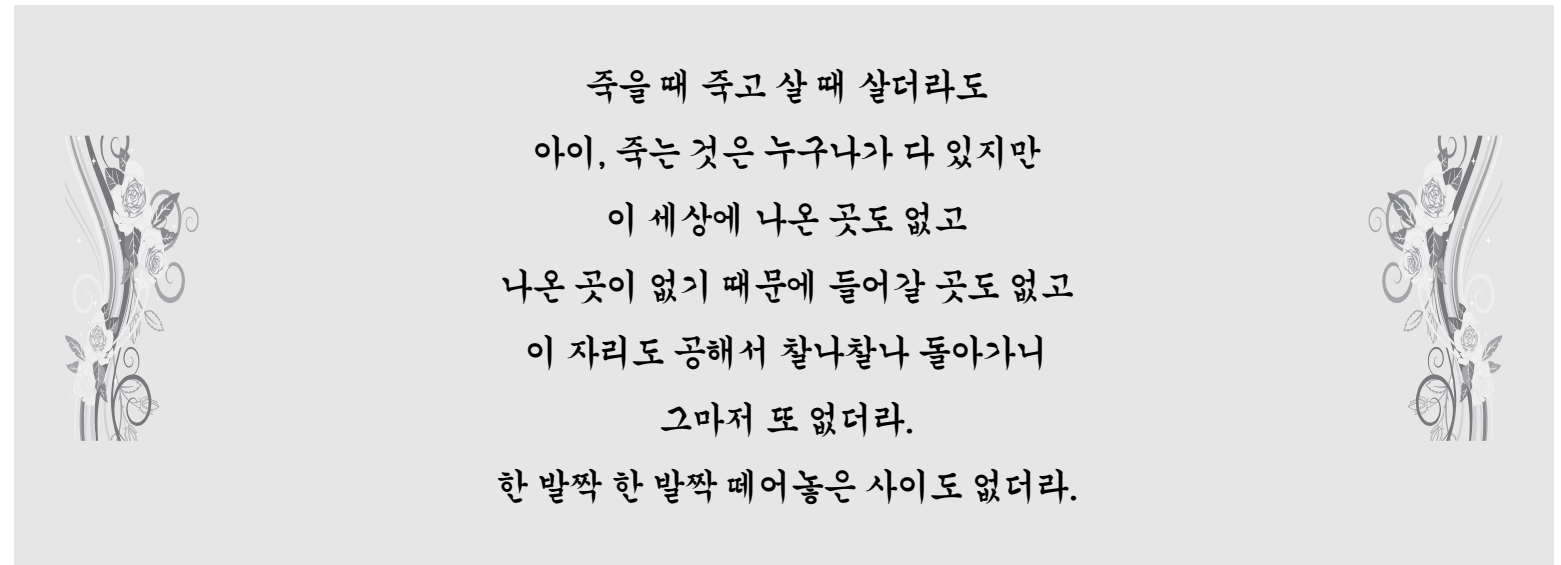
모르고 한 행동이 상대에게 큰 고통이...

문) 요즘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제가 모르고 한 행동이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거라는 정말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고통 받은 사람에게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 이런 게 있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활을 잘못 쏘아서 남의 머리를 그냥 활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현실에 다시금 나와 가지고 탄생을 해서 어린애끼리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어린애가 모르고선 그냥 불집게로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수리를 찔러서 또 죽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과거에 활로 쏘아서 저쪽 사람을 죽인 거고, 저쪽 어린애는 모르고 또 이쪽 어린애를 연탄집게로다 찔러서 죽었던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나 이겁니다.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도 그런 줄 모르고 행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 그런 것도 그냥 딱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스쳐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커버해서 주인공에다 '이것이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너만 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쪽도 밝아지고 이쪽도 밝아져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이 딱 막아진단 말입니다. 해결이 딱 되고 그러니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스 쇠를 용광로에다 넣으면 다 같이 녹아 버린다 이런 게 있죠? 자식 덩어리를 누구니까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거든지 거기가 불이면, 못 쪼기리든지 뭐든지 불이면 그냥 자식 덩어리가 돼 버리는 거지,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하고 모든 거는, 나쁜 거든 뭐든 그냥 주인공에다 맡겨요. 잘한 것도 주인공, 못한 것도 주인공! 다 그냥 주인공에다 맡겨 버리면 나는 훅훅 털고 그냥, 그냥 날아다니죠. 왜 괜히 짊어지고 다녀요, 그냥?



을 내야 할는지요.

답) 그거는 마음을 내고 안 내고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친근하게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냉랭하게 그냥 담담하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못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집안 환경 때문에 아주 곤궁하게 불쌍한 사람이 있고, 시시때때로 각각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거를 지혜로운 마음이라면, 불쌍하면 불쌍치 않게 모든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써서 주인공에다 놔 버리겠죠. 그러면 그냥 삼계가 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마음 한번 탁 내 주면은 그쪽도 좋아지고 보는 나도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짢다, 좋다, 밍다, 예쁘다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내려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던 사람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 줬을 때 다시 바뀌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해서 얽힌 것이 풀려지

그 뜻을 모르지만 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공과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은 죄 알아듣게 돼 있어요. 어디나 억울한 사람 보면 억울한 대로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대로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어든 이 공부 할 때는 한 눈 팔지 말고 꼭 열심히,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아이, 죽는 것은 누구니까 다 있지만 이 세상에 나온 곳도 없고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자리도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그마저 또 없더라.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은 사이도 없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얼마나 훌륭하고 좋겠습니까?

술 먹는 남편 힘들어요

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폭행패를 부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보기도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공부를 하면 좀 나아질까요?

답)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니까 다 그냥 이렇

요 왜, 상점에 가 보면 금방엔 금이 놓여 있고 냄 마저엔 냄마가 모여 있죠? 따로따로 전부 끼리끼리 모여 있죠. 사람도 끼리끼리 있고 물건도 끼리끼리 있고 이게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건 그 따로따로 있는 것대로 모두 인연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 이라고 싸우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끼리 만났다면 똑같은 사과끼리네 어떻게 똑같은 사과가 사과끼리 너 잘못했다고 나무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얘기도,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잘못든 잘못든 간에 자기 탓이지 이 상대방의 탓은 없어요. 상대방의 탓도 없거니와 상대방이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친절해도 통 놔 주고 잠자 주고 밥 먹여 주고 아파 주고 죽여 주는 사람 봤습니까, 대신?

대신 그렇게 해 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모두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 뿌리를 자기

풍부해진 색감!
넓어진 메모 공간!
더욱 새로워진
2012년 마음 다이어리
절찬리 판매중!

아쿠아 블루
오렌지 브라운
라임 그린
세 가지 컬러!

130x170mm
정가: 12,000원

마음의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MAUM DIARY 2012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가기 위한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
한 달 동안 생활의 지침이 될
대행 스님의 법어가 실려 있어요!

YEARLY PLAN
한해 동안의 일정과 박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MONTHLY PLAN
목표달성을 지원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갑니다.

DAILY PLAN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곳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웁니다.

패스텔톤의 화사한 수채 그림과 손글씨로 쓴 법어 디자인!

뒷표지에는 큼직한 포켓이 달려 있어 메모지 등 수납 공간으로 쓰기 좋아요!

판매처
현불삼 : 02-2004-8215
템플스테이 서점, 교보, 영풍,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외 일반 서점

구입시 입금 계좌번호
농협 : 211813-52-006904
국민은행 : 222-2106-08997
예금주 : 이현정

숲속가게™ supsokgage
한마음저널 공식블로그(한그루의 숲)
blog.daum.net/hanjournal/355
구입 문의 : 010-8675-3108

* '숲속가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출판기금으로 쓰입니다.